헤럴드경제

서울과기대 실험실서 화학물질 시약통 폭발..학생 2명 다쳐

2018-07-17 08:19

[사진=서울과기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6시8분경 서울 노원구 서울과기대 공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시약통이 폭발해 학생 2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두 여학생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이후 학생 6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사고는 서울과기대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폼산(formic acid) 시약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시약통이 충격을 받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인쇄하기 창닫기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